

## 문화정책·시스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민선 6기 광주시 문화행정 새 판을 짜라

### ① 시장 마인드가 관건

광주에 광주시장은 취임 후 바로 영국 에든버러시를 방문, 축제 교류 추진을 제안했다. '시장님 관심 사항'에 광주문화재단은 4개월만에 에든버러 페스티벌 참가 작 '자스민 광주'를 완성해야 했다. 제작비는 10억원에 달했다. 공무원들 뒤편에 급히 만든 작품이 완성도가 높을 리가 없었고 결국 작품은 1년만에 사라졌다. 2012년은 에든버러의 답방 차례였다. 공연단은 오지 않았고 급조된 심포지엄에 축제 감독 등 3명이 다녀갔다. 50여명 모인 토론회 비용은 4400만원이었다. 2013년과 2014년에는 아예 아무런 교류도 없었다. 단체장 입맛에 맞춘 전형적인 전시 행정이자.

신임 시장에게 지역문화계가 바라는 바는 완벽한 '새 판 짜기'다. 당선인의 표현처럼 '첫 시민시장'답게 기존 단체장들과 다른 패러다임을 갖고 문화에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일보는 5회에 걸쳐 광주문화재단, 광주비엔날레 재단 등 민선 6기 광주시가 꼭 짚어야 할 문제들을 연재한다. <관련기사 17면>

현재 문화계 가장 큰 관심 사항은 문화 예술 핵심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장에 어떤 '인물'이 선임되느냐는 점이다. 신임 시장의 문화마인드를 판단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는 생각에서다. 벌써 특정 자리에 특정 인사들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등 '자리'를 둘러싼 이야기들이 들린다. "인수위원회 명단에 늘 보이던 사람이 또 보여 실망스러웠다. 광주 문화계에 그렇게 사람이 없나 싶어 답답했다"는 한 예술인의 말처럼 문화계에서는 감투나 시 관련 사업에 줄기차게 참여했던 '단골 손님' 대신, 새로운 인물의 등장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 중 최대 관심사는 현재 공석 중인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과 사무처장이다. 지난해 진행된 사무처장 공모에 23명이 지원할 정도로 과열 양상을 보여온 자리다. 간판만 '공모'를 내거는 대신 해당 분야 전문가 중심으로 공정한 선정위원회를 구성,

문화관련 기관장 선임 시장 '입' 아닌 시민 '눈' 볼 수 있는 인사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적임자를 뽑아야 한다는 게 지역 문화계의 여론이다. 창립 20주년을 맞은 광주비엔날레재단에 대한 문화계의 쓴소리로 거세다. 재단은 이미 윤 당선자가 '비엔날레 제로베이스 검토' 발언을 한 이상 어떤 형태로든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 예술인들과의 소통 부재, 시스템 대신 지나치게 특정 인물 중심으로 돌아가는 운영, 광주디자인센터와 옛박자를 내고 있는 디자인비엔날레 개최 문제 등을 짚고 가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재단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기반으로 한 광주문화재단의 위상 정립도 시급하다. 현재처럼 시가 '내리는 사업'을 떠맡는 대신 역량 확보를 통해 광주시 문화정책과 함께 정책 파트너로 참여하며 문화정책을 입안하고 문화 기반을 다지는 게 필요하다. 또 지역 문화예술계의 요람인 광주 문화예술회관의 개방형 공모 등도 짚어봐야 할 문제다.

그밖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추진단과의 정책 공조와 오는 7월29일 시행되는 지역문화진흥법을 통해 시민들 문화 향유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정책 추진에도 나서야한다. 또 단체장의 '입'만 바라보고 문화 예술 관련 산하 기관과 문화예술계에 군림하려는 일부 공무원들의 체질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گون 지역문화교류재단 사무처장은 "민선 5기 광주시 문화정책은 아주 잘 짜여져 있었지만 실현되지 못했다"며 "결국은 단체장의 마인드와 그걸 실현해내는 사람들이 중요하기에 정책과 사람이 잘 어우러지는 시스템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결전의 현장 2014 브라질 월드컵 H조 첫 경기인 러시아전을 하루 앞둔 17일 오전(한국시간)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결전지인 브라질 쿠이아바 판타나우 경기장에서 공식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KTX 광주역 경유 안한다 윤장현 당선자 인수위 검토 "지하철 2호선 폐기 논의 안해"

윤장현 광주시장 당선자 인수위원회인 '희망광주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가 KTX 광주역 경유안의 폐기를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규 준비위 긴급현안 TF 팀장은 17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KTX가 송정역에 도착해 역방향(후진)으로 광주역에 재진입하게 되면 준비시간 20분과 운행시간 17분 등 총 37분이 소요된다"며 "KTX노선을

변경해 광주역으로 진입하는 방식도 1400억원이나 소요돼 현실성이 없다. 국토부에서도 이 (두)방식에 대해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팀장은 폐기 등의 논란에 휩싸인 도시철도 2호선 공사에 대해서는 "1조9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이중 40%를 광주시가 부담하는 대규모 공사인 만큼 시민의 의견을 제대로 들어야 한다는 게 윤 당선자

의 방침"이라면서 "일부에서 제기한 (도시철도 2호선) 폐기를 논의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팀장은 준비위의 역할에 대해서도 분명히 선을 그었다. 이 팀장은 "준비위에서 이 같은 주요 현안을 최종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기자회견을 포함한)여러 논의단계를 거쳐 종합적인 의견을 제시하면 윤 당선자가 취임 후 최종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

### 알림

## 2014 광주·전남 청소년 축제

'행복한 학교, 신나는 교실'...7월 19일 문화전당 앞 광장

미래의 주인공 청소년들을 위한 축제 한마당이 광주에서 열립니다. 광주일보는 오는 7월19일 광주 동구 문화전당(구 도청) 앞 광장에서 청소년들의 예술·문화교류와 끼를 마음껏 발산하는 '제3회 광주·전남 청소년 축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축제에는 중국 학생들의 문화 공연 및 한국 청소년들의 밴드·댄스·풍물 공연, 학교폭력 척결 토론회, UCC공모전 등 다양한 경연이 펼쳐지며 각 대학 인기 밴드 및 댄스팀의 특별공연이 있습니다.

이번축제는 학교폭력을 척결하고 청소년들이 사랑과 우정이 넘치는 교실풍토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전국 대학의 입학홍보관도 운영대 중·고교생들의 진로와 대학선택에도 김치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청소년과 학부모 여러분의 성원과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시 : 7월 19일 (토요일) 오전10시 ~ 오후10시
- 장소 : 광주 동구 문화전당(구도청 앞) 광장
- 경연 모집 부문 : 밴드(락/포크), 댄스(비보이 & 팝핀/결합합), 풍물 학교폭력 척결 토론회·UCC공모전 (교사참여가능)
- 참가 자격 : 중·고교 재학생, 참가비 무료 (입상팀, 입상자 소정의 상장 및 장학금수여)
- 참가 문의 : 062-220-0674
- 주최 : 광주일보, (사)아시아문화
- 주관 :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광주관광컨벤션뷰로
- 후원 :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지방경찰청 전남지방경찰청
- 특전 : 경연 우수자는 교육부 장관상 및 교육감상 시상

光州日報社

광신대학교  
사랑과 감사의 60년  
1954  
60th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최고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The New C-Class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삼성자동차(주) 광주 경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번지 / TEL 062)226-0001  
 C 200 1,991cc, 1,509kg, 자동7단, 복합연비 12.1km/ℓ (도시연비: 10.8km/ℓ, 고속도로연비: 14.1km/ℓ), 3단급, 복합CO<sub>2</sub> 배출량 144g/km  
 C 200 BlueTEC Avantgarde 1,991cc, 1,509kg, 자동7단, 복합연비 12.1km/ℓ (도시연비: 10.8km/ℓ, 고속도로연비: 14.1km/ℓ), 3단급, 복합CO<sub>2</sub> 배출량 144g/km  
 C 220 BlueTEC Avantgarde 2,143cc, 1,625kg, 자동7단, 복합연비 12.1km/ℓ (도시연비: 10.8km/ℓ, 고속도로연비: 14.1km/ℓ), 3단급, 복합CO<sub>2</sub> 배출량 144g/km  
 C 220 BlueTEC Avantgarde with Powermatic 2,143cc, 1,625kg, 자동7단, 복합연비 17.4km/ℓ (도시연비: 15.1km/ℓ, 고속도로연비: 21.3km/ℓ), 18단, 복합CO<sub>2</sub> 배출량 111g/km  
 C 220 BlueTEC Exclusive 2,143cc, 1,625kg, 자동7단, 복합연비 17.4km/ℓ (도시연비: 15.1km/ℓ, 고속도로연비: 21.3km/ℓ), 18단, 복합CO<sub>2</sub> 배출량 111g/km  
 C 220 BlueTEC Exclusive 2,143cc, 1,625kg, 자동7단, 복합연비 17.4km/ℓ (도시연비: 15.1km/ℓ, 고속도로연비: 21.3km/ℓ), 18단, 복합CO<sub>2</sub> 배출량 111g/km  
 복합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제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제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